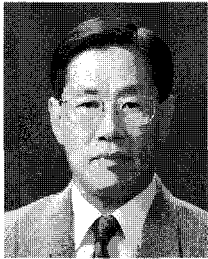




## 지함업계



**류 중 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신제품 개발로 판매시장 확대

2001년은 계속해서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급속한 소비감소와 실물경제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장기적 불황이 계속되었고, 대형업체의 과잉 경쟁 및 덤핑 행위에 대한 조직적 대응으로 업종간, 기업규모별로 지역연대 활동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해 나갔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계속적인 경기둔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동종업계간 상거래의 도덕성과 업체간의 신뢰를 다져가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 산업체수의 99.7% 종업원 수는 81.9%를 나타내고 있고 생산액은 47%, 부가가치 면에서는 48%로서 우리중소기업의 비중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 맞추어 중소기업들은 주위 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사업분야진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대기업에 버금가는 입지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지함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가동률이 10월 들어 3% 하락한 74%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명절특수로 인해 늘어났던 수주량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가동률 저하는 업계가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편중도 예상해야겠습니다. 지난해 90%이상의

## “전문기술인력 활성화시켜 성장가능성 높은 산업으로”

가동률을 보인 업체는 전체의 38%로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반면 60%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17%로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 것으로 나타나 규모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대해 올해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해 조금이나마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은 우선 경제원리 보다는 서로간의 사업을 존중하고 인간중심의 자율조직으로 이끌면서 상부상조 정신으로 협동사업을 추진해 권익보호 등 공급단가의 안정화 추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8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조직화한 포장선진국 일본의 전 일본지기골판지상자공업연합회와 다양한 교류 등 정보교류에 매진하고 신기술 도입 및 정보를 공유해 조합원사의 포장선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함업체수가 1,449개로 매출 총액은 1조7천억원이며, 임직원만해도 13,0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편 판지상자 및 기타 종이상자류는 325개로 매출액 3천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장 가능성에 선 지함관련제품인 90%이상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친화적 환경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타 소재 제품을 대체하는 등 판매시장 확대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함업체들이 각종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을 획득하고 각종 품질인증 획득건 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인력 부족으로 지함업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종업계는 전문기술인력을 하루빨리 활성화시켜 지함업계가 타 산업보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활기찬 새해에는 기초전문지식을 보유한 신지식인들이 동참하여 희망적이고,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